
아 내 를 말 한 다



간호원을 아내로 가진 많은 남편
들이 있다. 우리 그분들의 편을
들어보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한 태 동

가까이 지내던 어느 弟子의 結婚式이었다. 화려하게 차리고 온 손님들은 자신들이 결혼하듯 신혼하는 분위기로 신부의 入場을 색여보고 있었다. 순서대로 식순이 진행되어 서약에 이를 무렵이었다. 물적이는 소리가 들려 신부가 너무 긴장해서 우나하고 쳐다보았다. 신부가 아니고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물적이고 있는 것이었다. 結婚한 것이 後悔가 되고 平生을 같이 살겠다고 한 것이 恨인지 수건을 적시고 있었다. 어긋하게 나의 오해를 살뿐했다.

집에 와서 물었다.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한다. 감격하면 감격할 것이니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女子의 눈물이란 알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하는 말도 사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結婚한지 10년이 되었어도 종종 알다 모를 것은 女人인 것 같다. 그래서 싫거나 밉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豫想과 差가 너무 심하여 허탈할 지경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學生時節이었다. 학업을 거의 끝하고 歸國을 豫想하고 있을 때였다. 1956년이어서 國內은 아직 安定치 못하였다. 責任이 없던 學生時節과는 달리 故國을 염두에 두고 對相者를 生뉘하게 되었다. 모든 惡條件을 能히 같이 싸워 나갈수 있는 사람, 내뉘할줄 아는 사람, 自身이 外國배생이라 國內事情을 잘 아는사람, 國際的으로 教養이 成熟한 사람, 過히 의모도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條件들을 나열하여 놓고 擇해 볼려니 可能性은 거의 없었다. 배회하던 참에 어느 “콘프렌스”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素朴한 것을 理想으로 여겼으나 素朴하므로 얼른 눈에 띄우지를 않았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나 모든 일에 소금과 같은 일만 하였었는지 認識하기 어려웠다. 하루의 긴 회의를

끝내고 疲困하던 어느날 밤, 나는 그와 같이 새벽까지 對話를 나누었다. 2~3日 안자고 冊이나 討議를 繼續할 수 있는 나와 겨누어 보자는 것이었다. 이틀 날 아침; 그는 조금도 피곤한 기색없이 신선하고 경쾌하게 繼續 活動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첫 관심을 끈 것이다. 그래서 그날밤도 또 長時間 못 자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如前하였다. 나만 하구나 하였다.

그 때 나는 그가 간호학을 한 사람이라고만 알았지, 그 訓練을 통하여 그러한 性格을 所得한 줄은 몰랐다. 야간근무를 하여야하므로 밤잠쯤 못 자도 如前할 것이고 나로서는 學術 討論한다고 질질 끌었지만 그는 나에게 „환자에게 말 시키는 법”을 배워서 밤새도록이라도 말의 樂미를 繼續했다고 본다. 그 직업이 적은 보수로 봉사하는 것이므로 生活이 自然 檢박해지고 실속있게 된다. 特히 남을 위하여야 한다는데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生活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理想에 맞는 女人을 求한줄 알았으나 그 女人의 背後에서 作用하고 있는 간호훈련과 결혼한 것은 몰랐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카나다”로 다시 돌아가기전에 “시카고”에서 약 일주일 가량 체류하겠다고 하였다. 나도 그 곳을 거쳐서야 학교로 가게끔 되었는데, 마침 放學때라 같이 머물며 그곳의 有名하다고 하는 두대극

“바테”, 음식집 등 잘 안내해 주었다. 달라지는 場所와 경우에 料理 料理 料理하지 않고 응수해 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여러 층의 사람을 對할 때에도 태연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많은 사교적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면서 순진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수수께끼였다. 이 역시 그의 직업적인 훈련에서 온 것인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간호원으로서 數 많은 환자들을 취급하였으며 정상치 않은 病者들을 다루어 보아서 사교적이면서 순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로 바쁜 생활이었기에 그저 그러다가 헤어졌다. 학창에 다시 파묻혀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엽서 한 장이 날라 들어왔다. 이쁜 글씨로 수집되면서 솔직한 글을 써 보냈다. 고맙다는 인사였다. 글보다 글씨가 눈에 띄어 지난날을 즐겁게 회상시켜 주었다. 적적하든 참에 나는 내 흥에 겨워 長長 답서를 보내며 편지가 오가는 인연이 되어 3,000 마일을 격해 두고 날아다니며 만나게 되었다가 半年만에 결혼하게 되었었다.

타향에서 살림을 꾸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살림사리를 사고 마련하는 것이 그 때의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갔다. 각 가지 수건, 옷이불, 침대보, 그릇 등 한 상점을 차릴려고 하나 의심 할 정도로 사들였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그 때 작만했던 것들로 生活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敎수生活에 결정적인

원조작업이 됐다고 본다. 이 역시 병원에서 살림에 對한 훈련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배운 탓이 아닌가 한다.

歸國한 다음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는 서신과 예물을 부쳐 주고있다. 물론 賻한 것들 보다는 아이들 것 혹은 실용품들이다. 每番 生日 때와 특수 계절에는 꾸준히 카드가 날라온다. 집안 사람도 꼭 답장과 답례를 한다. 有限한 收入이지만 자기의 성의를 다 하곤 한다. 내 주머니가 애처러울 정도로 곧잘 털기도한다. 이러한 그들의 우정은 불만하다고 생각된다. 어려움을 같이 했고 이상이 같은데서였을 것이라고 본다. 어느 大學의 同窓들보다 더 강한 우정의 유대를 갖고 있다고 하고 싶다.

아이들이 돌·셋되고 자라는데 과히 불편을 느끼지를 않는다. 여러 모로 정확하게 주의하여 기르는데서 무사히 잘 크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가 注射를 봐 준다면 안심하고 잘 맞을 정도이다. 그럴때 마다 참 자부하는 말을 먹게된다. 너무 과중한 염려와 미리 겁을 먹는에서 必要以上の 神經을 쓰게 될 때도 있다. 원만한 감기가 들었다 해도 많은 부작용이 두려워 염려를 계속하게 된다.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存在가 되는 것 같다. 의사에게서는 진단과 처방을 얻어나 위안과 보살펴주는 것은 간호원에게서만 온다고 하는 인상에서인 것 같다.

그러나 간호원을 아내로 가진이들

에게 공통된 不平이 있다. 염살이 많은 환자들을 그 이상 더 必要한 간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서 오는 탈이라고 하겠다. 남편으로서 卍波에 시달려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탈은 머리가 아파서 아픈 것은 아니다. 心的 저기압으로 몸이 不快하다는 것이다. 그 것을 직업의식으로 體溫을 재려고 하면, 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바로 이때가 남편으로서 위안이 요청되는 순간이다. 이럴때 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心理學的 이해가 결여됐다고 하겠다. 아픈 환자취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이다. 거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투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량과 능청 맞게 살아보자는 말이다.

적장을 가진 부부로서 아내가 간호원일 경우 거기에 따르는 남편의 정신적인 부담은 많게된다. 과중한 노동과 참아야 되는 직업이어서 退勤한 다음 그대로 집에 오면 心理的逆轉으로 남편으로부터 위안을 요구하게 된다. 남편 역시 충일 풀곤하게 事業에 시달리다 집에 들어서면 각기 상대방에게 과한 기대를 두게 되며 기대에 어긋날수 밖에 없는 現實을 무시하고 거기에 격분되기 쉽다. 그런데서 가정의 분위기가 흐려지게 된다. 퇴근하기전 한 시간쯤 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어 맘을 가다듬는다면 좋겠지만 일을 다음 당번에게 인계해 주고 마지막 남은 정력을 다

쏟고나면 정말 자신이 병상에 누워야만 할 지경이다. 그런 “병자”가 집에 “입원”하는 격이다. 허덕이고 돌아오는 남편 역시 “병자”이고 보니 병자가 병자를 치료해야 되는 실정이 되고 만다.

부부가 다 직장을 갖는다고 하면 간호원과 유사한 직업을 가진 남편이 좋을 것 같다.

간호학은 어느정도 실천적인 지수를 배우는 곳이다. 공학이나 法學이나 기술직업에 종사하는 남편에게 더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그 반면으로 理論面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간호원으로써는 그의 分野外에 추상적인 것과 이론을 습득하지 않고 남편의 마음에 움직임을 포착하기는 어려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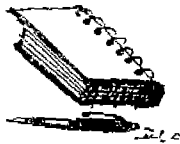
것이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二重的인 정신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결연은 협소한 직업 세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人間이 되어 사는 것이다.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약점 장점으로 파문을 일게 되지만 살아가는 것은 역시 사랑하며 사랑스럽게 만들어 보는데서 사는 것이다.

핀 꽃도 사랑스럽지만, 꽃을 피게끔 애쓰는데서도 이쁜 꽃을 볼 수 있다. 꽃의 種類도 직업과 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우는 재미는 노력에 따라 더 할 것이다.

<이화여자대 간호학과 홍근표씨의
부군 한태동 박사>

내 과 간 호 학



이 한편의 책이 내과간호의 전문간호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값 { 일반가 700원
 학생가 490원

강 재 옥 }
김 재 금 } 편역
손 대 관 }

반양장 · 경지 · 四六백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